

# 군산시,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 정부 추경 4억3000만원 확보 민간취업 연계 75명 모집 23일엔 기업·청년 매칭 '미니취업박람회' 실시 계획도

군산시가 4억3000만원의 2019년 정부 추경예산을 확보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청년들이 지역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모집에서는 민간취업 연계형 4개 사업에 대해 75명에게 청년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은 ▲만나보자 중소기업 청년연계 ▲청년문화기획가 양성 ▲청년 사회문화 서비스 기획가 양성 ▲창업매니저 양성 등으로 인건비 90%와 사회보험료(사업자부

담분) 등을 지원한다.  
참여기업에서는 인건비 10%와 함께 청년들의 일 경험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 후 6일까지 군산고용 위기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은 18일까지 전북세만금산학융합원 기업연구관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20일 청년 대상 사전설명회를 거쳐 23일 기업과 청년을 연계하는 미니 취업박

람회 형식의 청년·기업 매칭데이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국선 군산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는 청년들이 일 경험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구직활동과 연계할 좋은 기회"라며 "지속가능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모사업 등 예산확보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박근석 기자 nogusu@



### 강진 시문학파기념관, 교육부 '진로체험인증기관' 선정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이 교육부 '진로체험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사진> 강진군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진로체험기관 인증위원회를 열고 인문 콘텐츠와 교육환경 등 각 항목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시문학파기념관을 '2019년 진로체험 인증기관'으로 심의, 의결했다.  
'진로체험 인증마크'를 받은 시문학파기념관은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인증기관 지도 및 책자 소개, 전국단위 행사 시 '인문·교육도시 강진'의 군정을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게 됐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나이지리아 속담

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며 "시문학파기념관이 교육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선정됨에 따라 행정기관-교육기관-군민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소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문학파기념관은 2012년 개관한 이래 제1종 전문박물관 등재에 이어 2017년 대한민국 최우수 박물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로 8년째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 등 국내 문학관 운영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 남원시, 지역특산물 가득 '행복꾸러미' 출시 추석 앞두고 6개 마을기업 생산 잡화꿀·한과 등 담아

남원시 마을기업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특산물로 구성된 '행복꾸러미' <사진> 선물세트를 만들었다.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시 6개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잡화꿀, 한과, 들기름, 부각, 가마솥 누룽지, 구절초 꽃차 등으로 꾸며진 지역특산물 행복꾸러미 선물세트가 판매에 들어갔다.  
행복꾸러미 세트는 마을기업에서 생산되는 안전하고 건강한 재료를 사용해 선물용으로 좋다.

추석명절을 통해 마을기업 홍보와 제품 판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설에 이어 두 번째로 시도됐다.  
행복꾸러미 가격은 3만5000원이다.  
이번 행복꾸러미에 동참한 마을기업은 누운골 밀밭, 달오름마을, 흥부마을 남원 춘향골 공설식품, 지리산 황지마을, 지리산구절초 영농조합법인이다.  
남원시는 이를 조합에서 생산된 상품 판매를 통해 영세한 마을기업들의 성장과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행복꾸러미는 남원시 마을기업협의회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문의는 남원시 /남원=백선 기자 bs8787@



### 고창 북분자주 '선운' 호주 시드니 수출 선적작업 시작

고창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한 북분자주 가 호주 시드니 시장 수출길에 오른다.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서해안북분자주 자사 대표제품인 북분자주 '선운' <사진>을 호주 시드니로 수출하기 위한 컨테이너 선적작업을 시작했다.  
수출물량은 3만병 7만 달러(8500만원) 어치이다. 이 업체는 선운 수출로 시드니 지역 누적 수출액은 1억원을 넘어섰다.  
북분자주는 호주 시드니 현지마트 및 외식업체 등에 유통될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선운 북분자주는 고창산 최상급 북분자에 원적외선과 바이오성분이 함유된 황토 토굴에서 발효시켜 빚어낸 술이다.  
이 술은 2003년 대통령하사주, 2005년 APEC 공식만찬주, 2017년 청와대 만찬행사 건배주 등으로 사용됐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고흥군-친환경한라봉영농조합법인 협력 새콤달콤한 맛 '고흥한라봉' 생산 힘 모은다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한라봉 생산을 위해 전남 고흥군과 친환경한라봉영농조합법인이 힘을 모은다.  
고흥군은 친환경한라봉영농조합법인과 최고품질의 '고흥한라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당도·산도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농가별 '당·산도 관리'를 중점 지원하기 위한 현장기술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  
한라봉은 당도 13도Bx(브릭스) 이상, 산도 1.0% 이하일 때 소비자가 가장 좋아하는 맛을 낼 수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새콤한 맛과 달콤한 맛이 교차하면서 미각을 자극하는 고품질의 한라봉 생산을 위해서는 과실의 신맛을 내는 산 함량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고흥군과 영농조합법인은 매월 2차례 한라봉 재배 농가를 찾아 '당·산도'를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농가별 맞춤형 산도 관리를 지원한다.  
또 생육단계별 병해충 관리와 과원 관리 등을 위해 농가 현장 교육과 평기회를 개최해 고흥 한라봉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 순창 농특산물 잇단 도시민 '눈도장' 판교 흥보점 개설 이어 대형마트 입점 예정...판매량 늘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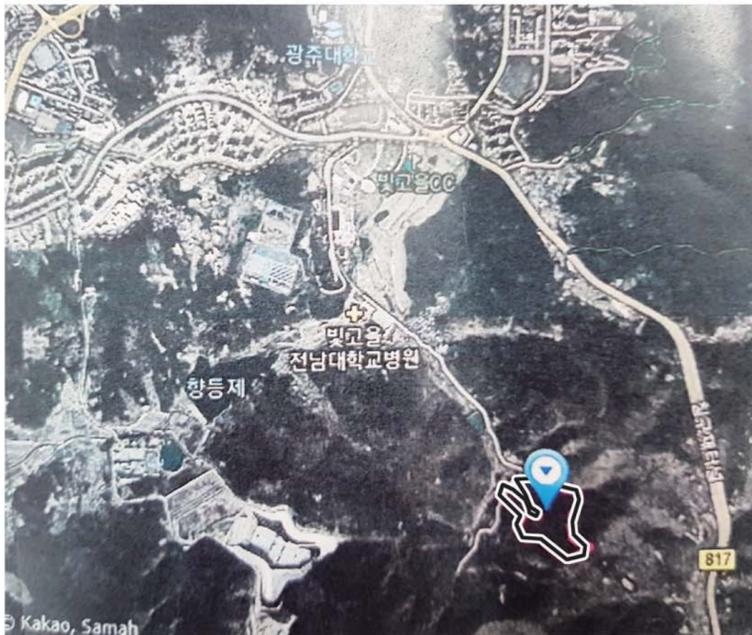
순창지역 농특산물<사진>이 최근 판교 교보문구 내 흥보점 개설로 도시민들에게 눈도장을 찍은 데 이어 대형마트 입점이 예정되어 있어 판매량이 확대될 전망이다.  
순창군에 따르면 현재 롯데마트 입점은 본사 관계자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로 계약서 작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입점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전라도 지역인 광주점과 전주점을 필두로 판매량이 확대되면 전국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특히 군이 개발한 발효 커피와 토마토 고추장, 순창 우슴자기 등 문화상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일 예정으로, 순창 고추장이

라는 브랜드 외에도 새로운 브랜드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롯데마트 입점 외에도 군은 다양한 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현재 지역 농특산물 알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7월 판교 교보문구 흥보점 개설을 시작으로 지난달 광화문 지하철 역사에서 교보문구까지 이어진 통행로에 팝업 스토어를 추가로 개설해 오는 12월까지 운영에 나서는 등 도시민들에게 순창 농특산물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여기에 교보문구 광화문점 내에도 흥보점을 마련하고 농특산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

### 익산 왕도역사관 추석연휴 개관...민속놀이 체험도

익산시 왕도역사관은 추석 명절 연휴기간에 정산 개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왕도역사관은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개관해 전시관 관람과 함께 민속놀이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기간 동안 역사관 광장에서는 팽이치기, 제기차기, 고리던지기, 굴렁쇠 굴리기, 투호 등의 체험이 가능하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또 전시관 좌우 입구에서는 팽과리, 징, 북, 장구 등의 사물놀이와 윷놀이 등을 즐길 수 있다.  
전시관 안에서는 백제 무왕대에 익산으로 천도했다는 유일한 기록인 '관세음 율령기 목판짜기' 체험과 당시 백제왕궁에서 사용했던 기와모형(수막새)을 활용으로 만들 수 있는 체험의 장이 펼쳐진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덕남동, 임야 급매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992㎡,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덕남동 산64-21번지)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일시불 조정가)

문의. 010-6834-7400